

1. 종교다원주의 배격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제1200호
6월 18일
2022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하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교총회
■ 농협
301-0153-7296-01
■ 문외
021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0,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예배 중심의 생활, 복음 전파 힘써야

청년봉사선교회 전 성전 임원, 청년구역장 세미나 열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주제 세미나

코로나 감염병 방역이 완화되면서 한국교회 가운데 전한 예배의 회복과 복음전파에 전파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은혜와진리교회(당회장 조용목 목사) 청년봉사선교회 임원, 청년구역장 세미나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주제로 지난 5월 22일(주) 저녁 8시30분 회당 프로그래밍 중의OOM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각 성전 청년봉사선교회의 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구역장들은 이번 세미나에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히 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맡겨 주신 거룩한 직분을 착하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기로

결단했다.

조용목 목사는 코로나 방역 등의 상황에서 청년들이 보여준 교회와 성도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치하하며 격려하고, 반후 1:10 말씀을 본문으로 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청년들의 신앙심과 사명감을 북돋워 주었다.

조 목사는 특강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사명감과 행위를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도록 청년들을 축복해 주었다.

“이 시대에 더욱 예배 중심으로 생활을 편성하고

조용하며 살아야 한다. 더욱 한층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믿어주는 복을 깊이 탐구하며, 누려야 한다.”

청년들은 주시는 말씀에 감동되어 ‘이젠’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에 따라 흔들림 없는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성직의 삶을 살기로 굳게 다짐했다.

특강에 이어 청년 임원과 구역장들은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 청년봉사선교회를 통해 직분을 할 감당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같은 직분을 맡은 청년들끼리 소그룹으로 모여 서로 간에 신앙생활에 유익한 경험을 나누고 부르고 선행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교단 제68차 총회 제37회 임원회

교단 69회 정기총회 10월 개최 점검

예배 회복에 전력, 거리두기 완화에도 방역 철저



신재현 목사
예배총회 회장
새연교회 담임

교단 총회(총회장 신재현 목사) 제68차 총회 제37회 임원회(가) 지난 6월 13일(월) 오후 1시 제주완복교회(담임 김진석 목사) 회의실에서 열려 각종 보고와 회무를 처리하고 주요내용 등을 결의했다.

이번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이경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사기 정양전 목사의 대표기도, 부총회장 정영섭 목사의 설교 순서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반 17-6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자의 설교를 통해 ‘반려교’의 믿음의 행태자들은 복음의 증인인 바울을 인용했고, 그 바울의 증인의 삶에 공동행여자가 되었다. 빌립보교도 믿음의 행태자들을 사모하는 바울의 내면은 예수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다. 예수님이 바울의 심정을 지배하고 있고, 바울은 예수님 없이는



아무런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며, 예수 때문에 살고 죽는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심장으로 반역되고 믿음의 행태자들을 사모하게 된 것처럼 서로 행태한 성도, 행태한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시도한다고

전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설교 후 임원들은 ‘은 국민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 각종 평등법, 차별금지법 제정반대’를 위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예배회복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한 후 회계 감사인 목사의 기도 인도, 부총회장 정영섭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끝으로 이어진 임원회의 제후 한순남 목사의 개회기도 후 총회장 신재현 목사 주례로 사기 정양전 목사의 회화문명, 의정 신재현 목사의 개회선언, 총무보고와 사안이 이어졌다.

이어 제후 한순남 목사의 수일보고, 회계 감사인 목사의 지출보고 순서로 진행되었다. 결의 및 안건으로 의사항으로 교회전통인 정경, 교회평생 변경 보고, 교회수준변경 보고 등이 의결된 바 있다.

이어 앞선(전회) 목회자의 소명 간에 대해 다루고 합리적인 결과를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 행태나 불행 부당할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교단 헌법에 의해 처리하게 될 것을 전하고, 감영령 개두기 조치가 완료되어 모에나 모든 상황들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감영령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두기를 완료하고 예배를 적극 회복하며 방역과 관망에서부터 더욱 세밀하게 살펴 감영령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기로 했다.

또한 오는 10월중 개최될 교단 제69차 총회 준비를 위해 총합을 나사기로 했다.



두루초장
다들
이제
사내
다들

‘역설적(逆說的) 진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고통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41:14 ~ 16, 고후 12:9 ~ 10)



조용목 목사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려면 힘과 화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함의 반대역이 약하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상식에 모순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디자가 되려면 굴복해야 하고, 강하게 되려면 약하게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설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먼저, 굴복당한 사람들이 진정한 순디자가 될 수 있다는 성경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힘과 화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환과 시험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경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승리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제련의 길에 비례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물들 중에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은 6만년전의 대홍수에 홍수까지 겪고 가족과 노비와 짐승들을 가지고 귀향에 올랐습니다. 그날 집이 없는 아담은 길에 이른 아담은 형 아담이 가지고 400명을 가지고 그로 오고 있는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웠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지혜와 방법을 더 동원했습니다. 이제 남은 수단은 강간한 두 아내였습니다. 아담이 아담을 때 두 아내가 아담을 유혹 끌어안았습니다. 아담은 소스라치게 놀랐으나 자기들 불을 붙여 해를 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아담이 아담이 불을 붙여 불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영혼을 지니 영혼이 불이 되었습니다.

정치가 말하기를 “내 이름들이 이상 아담이 부르지 않고 아담을 불렀다”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격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격투가 있었기 때문이다”는 말씀은 반역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격투가 이길 수는 전하여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와 하나님과 격투가 이길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패배한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압당한

반이 나가고 회개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정복자처럼 나타나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다음은, 역설적인 강함이 만드는 성경의 교훈을 살펴봅시다.

인간은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이는 대서부터 신양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복음의 은혜와 능력 속에 살아가는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이고 자만하는 사람을 완능을 통하여 깨트리어 자신의 무능하고 연약한 심상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인식하는 것이 가져야 하는 것은 생명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본보기 중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자신의 힘과 지혜로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할만한 아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와한 조건들은 바울이 사용하는 대에는 결핍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바울이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자신감을 가진다면 교만하게 되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 영혼을 자신이 취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써는 가시를 주셔서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늘 깨닫고 하나님의 권능을 뜨겁게 사모하며 간절히 의지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 받으려면 먼저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를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의 가시를 주시기도 하고 환의 물과 불을 불로 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나 강도에 있어서 보았을 때는 강하고 같은 것만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보아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어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은혜와진리교회)

부산 청년들도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비른청년연합, 부산서 ‘슈퍼노멀 페스티벌’ 개최하며 반대 목소리

부산의 청년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부산 청년단체인 ‘비른청년연합’은 지난 4월(일) 부산 남포동 시티스퀘어에서 문화 행사 ‘슈퍼노멀 페스티벌’ (SuperNormal Festival)을 개최했다.

지난 4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이 페스티벌은 ‘평범함 속의 비범함’을 추구하며 세상을 향한 당당한 의지’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 아티스트들과 함께 라이브 공연, 퍼포먼스, 오션스테이지 자유공연, 토크쇼, 파이드 등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날 열린 페스티벌에서는 청소년, 청년,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이 선택된 자유가 참여하고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수가 여학생을 포함할 수 있는 우려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최종정 청년(은)은 소위 ‘성중립화’에 대해 “성중립화라는 인구의 절반인 여성을 불만여 말게 하는 화성일”이라며 “평등은 하를 좋은 이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대군 주선(은)은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반대하고 방지하는 것이 아닌, 되려 차별을 정당화하고, 당당한 것들을 차별하는 법”이라며 “대중과 고졸의 차이는 차별이 아닌 학업이라는 분야에서 개인의 자유

에 따라 개인이 선택한 개인의 차이이다. 차별금지법은 어떤 사람을 두고 차별이라고 하면 개인의 선택에 따른 개인의 자유를, 그리고 청년들의 발전가능성을 방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네 명의 자녀를 둔 김하나 씨 등 학부모도 또한 “차별금지법은 이들과 달리 실상은 자유발달을 가진 차별자”라고 “자녀의 동성애 교육을 원하지 않는 것은 혐오가 아닌 부모의 정당한 권리”라며 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유자로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교육기관에서 동성애를 교육하게 되고, 이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며 “결국 평범한 생각을 가진 평범한 자녀들과 학부모들이 억압받을 판이 되고, 이렇게 평범한 가정들이 무너져 버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가수 황지수, 레퍼 Vanhoon, PTL 등이 라이브 무대를 장식했고, 그 외에도 많은 청년들과 두리선들이 오픈 스테이지에 참여해 다양한 물품을 제공했다. 슈퍼노멀 페스티벌이 마친 후에는 50여 명의 시민들이 부산 남포동 시티스퀘어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피켓을 들고 있었다.

—고두은



야유회 통해 단합과 회복의 시간 가져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조운주 목사)는 지난 5월 12일(목) 코로나 팬데믹으로 움츠러들던 몸과 마음을 한꺼번에 날려버리고 자연을 벗삼아 한 마음으로 기쁨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지방회원들은 4~6명씩 6개조로 편성 각 조별로 광주에서 출발하여 두 시간 남짓 달려 신안도 일지도 백길전사 식당에 도착했다.

순복음종교(조운주 목사)에서 식사를 섭취하였고, 직전회장 조갑수 목사의 감사기도 후 회차에 앞서 시간을 가졌다.

식사 후 30분 가량이 지리 점은 자연분개 해변에 도착한 모든 회원들은 나이도, 잊은



채 중심으로 돌아갈 해를 기념하고 뒤로 돌아오는 길에 무안군 유년년 생애에 도착하여 농부가 애써 기른 양파를 양산에 가득 들고서 각자 채소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다.

돌아오는 길에 무안군 유년년 생애에 도착하여 농부가 애써 기른 양파를 양산에 가득 들고서 각자 채소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다.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6월 7일(토) 오전 11시 부산시 진구 전도동에 위치한 순복음세움교회(장기영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태주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부산총 감정목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대표기도, 재부 서미곤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고전 3:1-6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인교회와 육적인교회'라는 제목의 설교, 화제회계승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찬양기도, 종영회장 한순남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축도 순으로 이어



갔다. 2부 월례회에서는 각 부서 보고 및 지교회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다음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특별히 월례회에 참석한 최이장 목사 시모인 노영호 시모는 지방회원들에게 '이장 목사님 은혜를 깨달아 기도해 주시고

정성껏 잘 섬겨주신 사랑을 기억한다'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가려졌던 월례회에 아들과 함께 참석하여 식사를 섭취하였다. 또 지방회장 정영진 목사 부부도 참석하여는 물론 식사하는 시간 모두 은혜롭고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간증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도사현 목사)는 지방회원들이 서로 얼굴도 보고 교제도 나누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난 6월 6일(월) 안동성곡교회(강태진 목사) 사무실에서 야유회로 모였다.

먼저 1부 순서로 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로 코로나 기간 동안 각 교회에 입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을 통해서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해를 넘겨서 여전히 계시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후 안동성곡교회에서



대중하는 귀한 정신을 먹고 안동성곡 주님께 있는 경치를 구경했으며 또 목사님들과 사도님들 모두가 함께 유람선을 탑승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안동성곡 주님의 공원에

들러 산책을 하고 아이들을 낚았으며, 안동성곡교회로 돌아와 준비한 간식과 선물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는 후 아쉬움을 뒤로하고 각자의 목장으로 향하였다.

목양신문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지만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역차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을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 E-mail : mok2677@naver.com / mok2677@kakao.com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3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3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22. 8. 31(수)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가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고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위원장의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22. 9. 15(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22. 9. 29(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22. 8. 31(화)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23. 2. 6(월)~7(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과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신재영 고시위원장 목사 이석호
총무 목사 이경진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김영준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매일성물집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 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알콜성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위실함)
- 3 고려대학교 송용석 교수님 일찍으로 세계특허함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노화억제,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노화억제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하계보고)

3)타식플린

1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년,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세포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황기, 위,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갈락 : 홍화씨의 2배, 말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0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배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플(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번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2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0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 1)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 연구를 통해 발표됨.
- 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 2)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직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신장, 유방에 효과적임
- 3)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 4)유방종괴, 암 부위, 미늘처럼 천년초를 붙여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적임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월드비전 통해 후원금 및 재능기부 펼쳐

배우 이광기 '밥피어스아너클럽' 임명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영환)이 이광기 홍보대사를 밥피어스아너클럽 회원으로 지난 6월 2일 임명했다.

배우 이광기는 지난 2010년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후 굿데이와 재대로 고봉환은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해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왔다.

특히 2012년 아이티 대지진 현장에 방문한 이광기 홍보대사는 현장 사진과 함께 학교 지원 사업에 동참했다.

더불어 다년간 자선 강연을 개최, 수익금 일부를 기부함으로써 비단전 기부 문화 장려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광기 홍보대사는 이태리에서 매년 국내와 주 목판은 작가들과 함께 미술 자선 강연을 진행, 약 6억 5,000만원의 건축 후원금들이 아이티에 전달해 안전한 학교를 건축한 바 있다.

최근에는 우라과이나 시비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가족들을 위해 자선 전시 및 강연회를 펼쳐 수익금 3,000만원을 후원했다.

이에 따라 이광기 홍보대사는 꾸준한 후원금 전달과 월드비전 캠페인 참여, 해외 사업장 방문 등 여러 공로를

인정받아 밥피어스아너클럽 회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위촉식에 참여한 이광기 홍보대사는 "국내외 여러들을 겪는 아이들의 상황을 알며, 모두가 함께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꾸준히 보태겠다"며 "앞으로 밥피어스아너클럽 회원으로서 지구촌 아이들을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나눔을 넓혀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월드비전 조영환회장은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꾸준한 나눔의 손길을 전해주시며 감사하다"며 "월드비전은 언제나 밥피어스아너클럽 회원들과 함께 투명하고 엄격하게 후원금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월드비전 밥피어스아너클럽은 월드비전 창립자인 밥피어스의 이름을 딴 국제 후원자 모임이다. 누적 후원금이 1억원 이상인 후원자 중 다양한 지구촌 문제에 공감하고 나눔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는 후원자를 회원으로 위촉한다. 밥피어스아너클럽은 후원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활동한 기부 문화 정착을 독려하는 기부 모임 중 하나다.

“생명나눔으로 이웃을 섬깁니다”

전국 13개 교회, 성도 487명 장기기증 희망등록 동참

(제사망) 장기기증은 동부(이성진 박진석 목사, 이하 본부는 지난 6월부터 전국 15개 교회가 생명나눔에 후원회를 통해 절원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해하는 사랑을 줄라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남양주시 와우읍에 소재한 동부광성교회(담임목사 김호준)는 6월 5일 창립 26주년을 맞아 후원금 1천만 원을 장기기증 환자들을 위해 기부하며 생명나눔의 감동을 나누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에 특별히 힘쓰고 있는 동부광성교회는 2011년 생명나눔에 특별히 성도 87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해 절원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컸다. 이어 이번에는 장기기증 환자들을 위해 모든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후원에 참여하여 깊은 이웃 사랑의 반향이 되었다.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마포교(담임목사 김진태) 역시 5월 29일, 후원금 3,021,600원을 만성 신부전 환자들을 위한 장기기증 기부금에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지난 시군회 기간 동안 '절대 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시작한 (순수한 사랑의 헌금 - 커피 한 잔의 사랑) 모금'을 통해 매주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대신 해당 금액을 헌금하며 이쁜 기부금에 있는 신장병 환자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같은 날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소망교회(담임목사 정영환)에서는 만나주일을 기념해 생나눔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했다.

남에게 베풀었다. 정영환 담임목사는 '적극적 이웃사랑'이라는 말씀을 선포하며, 나의 죽음이 생명을 살리는 복된 죽음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영생의 축복을 얻는 길이다"라고 생나눔에 참여할 것을 권했다. 이에 108명의 성도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했다.

스마트교육재단 EDUTV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업을

다음 세대를 위한 코딩교육 교재설명회

스마트교육재단 EDUTV(이성진 김경철 정로)는 지난 6월 23일 CSN(전통문화)에서 CSN(전통문화)과 함께 다음세대 코딩교육을 위한 '코딩 어드벤처' 교재를 개발하고 교재 설명회를 개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정로(이성진)교사, 한국정보

교사연합회 회장)가 코딩교육의 중요성과 방향, 학교 교사)와 부모의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정로(이성진)는 선진국에 비해 늦어진 코딩 교육을 지체하고 필수 과목에 '코딩 교육'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초·중·고 학생은 12년 간 불과 51시간만 코딩·SW·AI 관련 정보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상황. 46시간 정보교육을 하는 미국에 비해 현저히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코딩 어드벤처 교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코딩 교육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초·중·고로 차등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됐으며, 초·중·고로 차등된 부가 콘텐츠까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코딩을 배우도록 제작했다. 기존에 출시된 '스마트' 프로그램은 기반으로 제작된 코딩 교재는 초·중·고로 차등적으로 출시됐고, 각각 16개 교육으로 개발됐다.



배우 박하선, 하트재단에 1천만 원 후원

하트재단(회장 오지환)은 지난 5월 21일 배우 박하선이 발탁장예인으로 구성된 하트재단(오지환)을 위해 1천만 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창립한 하트재단(오지환)은 단원 전원이 발탁장예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16년간 예술의전당, 뉴욕 카네기홀, 워싱턴 DC 존 F. 케네디센터 공연 등 1,000여 회의 공연활동을 통해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해왔다.

최근 코딩·AI로 공연 기회가 줄어들어 무대에 서는 기회가 줄어든 이들에게 지속적인 음악 교육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배우 박하선은 지난 2010년부터 하트-하트재단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결식아동, 장애인 및 독거노인 봉사활동 등에 인적·재정 지원자 활동, 나눔 캠페인 등에 참여해 오고 있다.

이번 배우 박하선은 "장애를 받고 희망을 전달하는 단원들의 연주를 보면서 따뜻한 감동을 받아 그분들의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전도자를 발굴하는 가족세트전도

가족세트전도 대표인 전도자 박영수 목사와 가족세트전도 본부장 이수 교수를 만나 뵈어 반가웠습니다.

한일산 기도원에서 지선영주부부(박영수 목사)가 진행되었는데 이날 저녁 박영수 목사의 체험전도 설교를 듣고 전도받은 회개와 감사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박영수 목사의 설교를 통해 크게 도전을 받아야 할 두 분 감사함을 나누고 초청장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7월 1일과 8월 첫 주부터 월, 화요일에 6개월간 전도집회 강사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영광군의 열정과 성령의 강한 힘을 부흥의 열매를 입고 현장전도를 내신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도자를 발굴해 훈련시킨다는 말을 듣고 내일 오 가족세트전도를 통해 더욱 부흥하게 될 만났다고 말씀하시며 감사했습니다.

가족세트전도를 알게 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다음집회를 기대하며 두 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만나교회 박익사, 조예스 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대표 박영수 목사
평내순복음교회 강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0
031692-1691, 0108730-2573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움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충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기침 예방
8. 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365 치아 건강비전 옥금수

충치·풍치·잇몸질환

옥금수(소금물)로!!

500ml
30개들이 33,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www.enyber.com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